

여수, 전국 최초 청소년 해양교육원 개원

여수시가 미래 해양인재를 양성하고 해양 관련 재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에 특성화·전문화된 해양교육원을 지난 3일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주철현·김희재 국회의원, 도·시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개원 축하 조타기 퍼포먼스로 청소년 해양교육원 개원을 축하했다.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은 국·도비 등 총 180억 원을 들여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연 면적 6,270㎡,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됐다.

1층은 수영장, 스쿠버다이빙풀, 2층은 해양환경 탐험관, 해양안전교육관, 해양레포츠 체험관, 4D하프스릴 영상관, VR 해양레포츠 체험관, 3·4층은 다목적 강당과 최대 152명이 숙박할 수 있는 27실 규모의 생활관이 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을 맡는다.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은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6개 분야 24개 프로그램을



여수시청소년 해양교육원 개원을 축하하며 참석자들이 조타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국·도비 등 180억 투입...지상 4층 규모 건립 해양인재 양성 6개 분야 24개 프로그램 운영

을 통해 미래 해양인재 양성에 나선다. 생존 수영, 선박사고 훈련 등 '해양안전

교육'과 프리다이빙, 스킨스쿠버, 카약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제공한다.

또한 해양영토교육과 환경 지킴이 활동을 포함한 '해양환경·과학' 교육과, 해양진로 직업 교육 등 '해양교육 연구 개발', 이순신정신 교육·탐방 등을 할 수 있는 '해양관광'과 해양 안전·해양 레저스포츠지도자 등 '해양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개원과 함께 12월에 착공하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과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이 박람회장 사후활용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여수 바다와 섬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흐르는 것은 멈추길 거부한다

여수국제미술제 내달 3일까지...조각 등 226점 전시

여수시를 대표하는 전시회인 '2021 여수국제미술제'가 최근 개막했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여수국제미술제는 10월3일까지 박람회장 전시홀과 여수엑스포 야외광장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테이프 커팅을 제외한 각종 부대 행사들을 전면 취소하고 전시회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전시회는 '흐르는 것은 멈추길 거부한다'라는 주제로 근현대사의 흐름 속

절저하게 타자화된 아시아의 상처투성이 역사를 돌아보며, 이를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내어 치유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전시 기간 시민과 관광객들은 국내·외 작가 74명의 야외 조각 20점과 회화·사진·영상미디어·설치미술 206점을 관람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야외 공간을 활용한 조각 작품들이 20점 전시돼 눈길을 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고흥 내일 소록도 근대역사 유적 사적 지정 학술대회

고흥군이 오는 7일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소록도 근대역사 유적의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소록도 근대역사 유적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부터 조성돼 현재 100년이 넘는 동안 한센인의 삶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다. 소록도 한센인 관련 유적 및 유물로 전남 문화재자료 1건, 국가등록문화재 16건이 지정 및 등록돼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 외 소록도 한센병 박물관에도 한센인들의 다양한 유물과 기록물이 보존

돼 있다.

고흥군은 한센병을 극복하고자 했던 소록도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곳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소록도 근대역사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사적 지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는 1부 소록도 근대역사의 특징과 의의, 소록도 기록물 현황과 활용, 2부 소록도의 생활사 및 민속의 의미와 전승, 소록도 공간과 유적의 가치 및

보존 등에 대한 발표에 이어 마지막으로 전체토론이 진행된다.

고흥군은 이번 학술대회가 고흥소록도 사적 지정의 첫발을 내딛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고흥소록도 국가사적 지정 학술대회'를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남취재본부=진중언 기자



다음 달 3일까지 박람회장 전시홀과 여수엑스포 야외광장에서는 '2021 여수국제미술제'가 열린다.

/여수시 제공

구례 매천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풍성'

구례군이 매천도서관에서 독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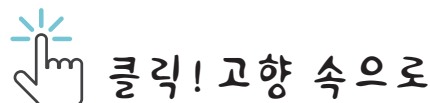
이번 행사 기간에는 최철희 씨의 인문학 특강 '나도 내 이름으로 책 한 권 내고

싶는데'와 독서의 달 홍보 이벤트, 책 읽어주는 시간 등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매천사, 방광초 유물전시관, 호양학교 등을 탐방하는 구례문학기행과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글쓰기, 그림엽서,

한지인형 등 작품전시회도 열린다.

오는 8일 오후에는 '찾아가는 지혜의 숲, 전남도민강좌'로 지역 출신 정치작가의 '자본주의의 적' 강좌가 진행될 예정으로, 어느 때보다 알차고 다양하게 군민들의 문화 욕구 해소 및 인문학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광양 광영동 4개 사회단체, 나눔의 쌀 기부

광양시 광영동 4개 사회단체가 최근 광영동 주민센터에 쌀을 기탁했다. 광영동 발전협의회, 광영상공인연합회, 광영동 금회, 광영동 도촌회 등 4개 사회단체가 참여해 300만 원 상당의 쌀 80포를 기부했다. 기부된 쌀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안영호 발전협의회장은 "힘든 이웃

을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중 광영동장은 "인정과 베품, 선행을 이어주는 주민들의 마음이 광영동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며 "기부받은 후원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구례새마을회, 지구온난화 방지 앞장

구례군새마을회가 최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녹색생활화 운동의 하나로 재활용품 수집·선별 작업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구례군새마을회 회원들은 읍·면별로 모아온 빈병, 농약병, 헌옷, 폐비닐 등을 종류별로 정해진 장소에 옮기고, 농약병은 회원들이 직접 선별 작업을 통해 최종 분리작업을 마쳤다.

구례군새마을회 임종선 회장은 "생활

에서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용품들을 재활용하고 이로 마련한 금은 불우이웃 돕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새벽부터 다 같이 참여해 선별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의 단합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러한 모습이 좋은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순천교육지원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순천교육지원청이 최근 순천지역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모국어에 대한 중요성과 다문화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초·중생과 관심 있는 학부모 등의 참여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다문화 학생으로서 자신

의 진로 등에 대한 생각들을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로 각 3분씩 발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전남도교육청 주관대회를 거쳐, 교육부 주관 전국대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용덕 교육장은 "다문화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키워 다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보성, 소상공인 점포

마스크 17만장 배포

보성군이 식당 및 공중이용업소 등 소상공인 점포 2,950개소에 마스크 17만 7,000매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배포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방역수칙 의무시설 담당 부서가 업소를 직접 방문해 방역수칙 등을 안내 후 지급한다.

이번 마스크 배포는 최근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추석 연휴로 인한 인구 대이동이 예상돼,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소상공인들과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확진자 수가 적고 N차 감염사례가 거의 없는 것은 군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주신 군민들 덕분이다"며 "지역주민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 방역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보성군민이 방역활동의 영웅이며, 군에서도 군민들의 건강 보호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방역 활동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순천, '푸른 하늘의 날' 운영

순천시가 제2회 푸른하늘의날을 기념하기 위해 '건강한 공기, 건강한 지구'란 주제로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푸른하늘의 날 주간'을 지정해 미세먼지 없는 하늘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다.

푸른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첫 유엔 공식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순천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는 지양하고 대중교통 이용 및 도보 출퇴근, 미세먼지 저감 1인 캠페인 등 소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푸른하늘의 날인 7일에는 순천시민, 순천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및 도보 출근을 장려하는 행사를 실시하며, 5일장이 서는 아랫장과 터미널 등에서 푸른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1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푸른하늘의날을 맞아 대기환경과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